

# 끼니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이웃

### 장기 경기침체에 강력 범죄 줄고 생계형 범죄 급증

### 가게 점고 직장 잃고... 벌금형에도 돈 없어 노역 차처

“형사님, 노역장에서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15일 광주광산경찰에 절도 혐의로 검거된 김모(52)씨는 경찰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이 탄로나자 이렇게 답했다. 주차된 차량에 손을 댔다가 흠치기도 전에 발각돼 신고받은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검찰이 수배 조치한 것이다. 김씨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1일 새벽 3시에 광산구 월계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 있던 고가의 겨울 외투를 훔친 혐의로 이날 경찰에 붙잡혀왔다. 범행 장소 인근의 한 병원 대기실에서 훔친 옷을 입은 채 검거된 김씨는 “추위를 피하려고 큰 죄를 저질렀다. 노숙자 신세라 벌금을 낼 형편도 되지 않는다. 몸으로 죄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전만 해도 광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다. 지역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면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반면 생계형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해서라도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려는 강한 범죄 의지를 품고 강력범죄에 나서는 게 아니라 단순히 끼니를 잇기 위해서, 밀린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범죄 행각을 저지른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치밀한 범죄 계획도, 범죄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내몰리다시피 범죄를 저지른 탓에 검거도 손쉽게 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지난달 18일 경찰에 붙잡힌 조모(63)씨도 마찬가지다. 죄목(혐의)은 ‘강도미수’. 그는 검거되기 4일 전인 14일 오후 6시30

분께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여성 집주인(74)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다.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드는 여성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으려 했지만, 막상 여주인이 소리치자 놀라 달아나 버렸다. 그는 자신을 붙잡은 경찰에게 “살고 있는 영구입대 아파트 관리비가 한 참이나 밀렸다.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고 막막해서 생전 처음으로 큰 죄를 짓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임병순 경위는 지난달 18일 자신이 붙잡은 김모(42)씨의 취업을 1개월째 돕고 있다. 김씨의 혐의는 ‘방화’로 중한 범죄임에는 틀림없지만, 보면 불수록 그의 사정이 딱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밤 광산구 신가동의 한 식당 앞에 있던 빈 박스 등에 불을 지른 뒤 들고 술을 마신 뒤 술집 앞에 있던 빈 상자 등에 불을 놓았지만 큰 피해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평동산단의 한 제조업체 공장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공장이 갑자기 부도났고 이후 몇 개월째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그는 자신의 행편을 크게 괴로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계로 보더라도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생계에 내몰려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남산단·평동산단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바닥을 친지 한 참 됐다. 대형 사업체도 문을 닫고,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심화되면서 앞으로가 더 큰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지난 2013년 광주에서 944건 발생한 것이 2014년 905건, 2015년 812건으로 감소했다. 살인의 경우 지난 2013년 23건에서 2014년 19건, 2015년 18건으로, 강도는 86건이던 것이 53건, 44건으로 대폭 줄었다. /김영호기자 khk@kwangju.co.kr

##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 공모

전남도는 도 인증 어린이집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도 인증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우수 어린이집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0곳을 선정한다. 지난해 52곳을 선정했고 2018년까지 총 200곳을 지정한다. 전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클린회계, 참보육, 안심보육, 창의인성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확정 마감일 기준 보육급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이 종료돼야 한다. 영유아 확대를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인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어린이집이 제출한 자체점검 보고서와 시군이 확인한 기본사항, 4개 분야별 현장 관찰 사항을 종합해 5월말 인증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기록관 찾은 한일 대학생들

제28회 동아시아대학생 평화인권캠프(16~20일)에 참가한 전남대, 서울대, 제주대, 일본 리츠메이칸대 등 한·일 6개 대학 학생들이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찾아 80년 당시의 기록물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학생들은 캠프기간 5·18 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 사적지를 둘러보고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최고 9천만원 배상 받는다

###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결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노인과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염전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17일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염전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8명의 피고는 각 원고에게 1500만원에서 최고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는 피해자들이 일한 기간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며 “업주는 그 기간동안의 최저임금액 상당을 부당이

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8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에 의해 제기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측은 “피해자 8명은 5~10년 장기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3년치만 합의금

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산적·정신적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염전 업주가 피해자들의 장애를 악용해 염전에서 노동을 시키고 소금생산이라는 이득을 취했음에도 3년치의 최저 임금만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익 반환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6 해질 18:17 | 월출 14:12 월몰 03:35

**일교차 커요**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이 많겠다.

광주	맑음	-3/11	보성	맑음	-5/9
목포	맑음	-1/9	순천	맑음	-2/11
여수	맑음	1/9	영광	맑음	-6/10
나주	맑음	-5/11	진도	맑음	-3/10
완도	맑음	-1/11	진주	맑음	-3/11
구례	맑음	-5/10	군산	맑음	-3/9
강진	맑음	-4/11	남원	맑음	-5/11
해남	맑음	-6/10	축산도	맑음	3/9
장성	맑음	-6/10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1.0~2.5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동)	남서~서	0.5~1.5	남서~서	1.0~2.0
남서부	면바다(서)	남서~서	1.0~1.5	남서~서	0.5~1.5

**생활지수**

- 체감온도: 관심
- 동파: 낮음
- 뇌졸중: 매우높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52	03:19
여수	23:01	16:33
	06:16	12:37
	18:34	00:00

**주간 날씨**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1/11	0/9	0/6	-2/4	-1/8	-1/8	0/8

## 을충장축제 주제는 ‘추억을 넘어 미래로’

### 9월29일~10월3일 개최

올해 ‘추억의 7080충장축제’는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열리며, 주제는 ‘추억을 넘어 미래로’로 결정됐다. 광주시 동구는 제13회 추억의 7080충장축제 주제 공모를 실시해 전국에서 응모된 156건의 작품을 심사한 결과, 장영욱(경남 고성군)씨의 ‘추억을 넘어 미래로’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선작에는 5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신임 교육국장에 박재성 사무국장

### 광주시교육청 전문직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17일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교장·교감,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21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명단 22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이종식 광주 상무초 교장이 임명됐고, 봉천 혁신교육과장에는 양정기 광주일고 교장, 미래인재교육과장에는 이영주 광주공고 교장, 체육복지건강과장에는 김홍식 각화초 교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이세천 교육연구실 교수부장은 학생해양수련원장으로, 정복이 농성초 교장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임 박 교육국장은 장휘국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교장·교감 경력 없이 교육국장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국장이 당분간 교육국장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을 겸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용기자 dok2000@

대한보청기 www.maxo.co.kr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지,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특가·맞춤렌탈·장기신용할부·국가보조금 대상자 특별지원**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범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35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 1599-9040

◆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